불교 · 기독학자, '탈종교' 화두를 들다

레페스 포럼, 11~12일 금선사서 토론회

"2015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질문했다. 이내 자답했다. "바로 한국사회에서 무(無)종교인 비율이 유(有)종교인 비율을 인구통계상 처음으로 앞지른 해입니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무종교인은 2749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1%에 달한다. 2005년 조사 당시 47.1%보다 약 9%로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근 한국 종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탈종교화'이다.

불교와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인 레페스 포럼은 7월 11~12일까지 서울 종로 금선사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을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 모임에는 은유와 마음연구소장 명법 스님을 비롯해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원영상 원광대 연구교수, 류제동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 불교학자들이 참여했으며, 기독교 학자로는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탈종교화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은 이도흠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탈종교시대에서 불교의 재해석과 지향점'을 통해 △탈근대 문화현상 △절대자 믿음에 대한 회의 △신자유주의체재로의 종교 편입 △제 역할 못하는 종교 등이 탈종교 현상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교단들이 탈종교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퇴행적이거나 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명상과 치유, 수련회 등 종교의례와 수행의 대중화는 대중들에게 종교의 저변을 넓히는 것 같지만, 이는 대중들이 종교를 이지나 상품으로 소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임시방편으로 해소 · 고착화 한다"면서 "이는 종교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상품화해 시장체재로 편입시킨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은 '탈종교'가 아닌 '탈사회화'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며, 현재 종교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본래 색깔(宗教本色)'이 무엇인지라고 역설했다.



불교와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인 레페스 포럼은 7월 11~12일까지 서울 종로 금선사에서 '탈종교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을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 · 기독학자 12명 참여해
주요 기성종교 폐단들 지적
"비종교적 인성가진 신자多"
종교 본령과 성찰 복원해야

정 원장은 "현재 종교계의 탈종교화 대응은 근본주의적 교리와 제도를 강화 · 성장하거나 '종교색'을 빼고 전법 · 선교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된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통의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종교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존재 이유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용표 교수는 비종교적 인성을 가진 종교인 · 신자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특정 종교의 지도자나 성직자들의 의식구조는 물론 그들의 신자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교의 상업화, 물신화, 특정인 우상화, 기복화, 권력화 등과 같은 비종교적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교단적 차원의 겸허한 자기비판과 이를 자초한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는 자신이 시작한 비형식 교회 '가나안 교회' 사례를 소개하며 탈종교화 시대에 필요한 종교교육은 종교 신뢰 · 영성 회복과 이웃종교간 대화 등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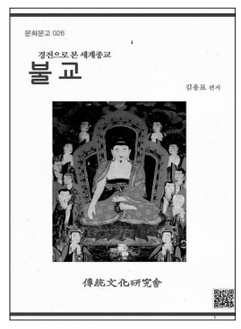
한편, 레페스 포럼은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에 대해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주도로 회복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로 인해 손 교수는 해직됐다. 이후 불교와 기독학자들은 종교간 평화를 위해 '레페스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경전으로 본 부처님 생애 · 가르침

전통문화연구회 〈경전으로 본 불교〉 발간

저자 김용표 명예교수 참여
〈경전으로 본…〉시리즈 완결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법을 설하며 중생을 제도했다. 80세에 열반에 들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3차례 결집대회를 통해 경전으로 편찬한다. 이는 경 · 율 · 론 삼장으로 성립되고 대장경이 된다. 즉,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어떤 생애를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불교편〉은 불교의 다양한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살펴보면 연기론(緣起論),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등 불교의 핵심적 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와 관계된 경전의 내용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불성(佛性)'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 〈대승열반경〉, 〈승만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에서 불성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독자들이 '불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불교편 저자로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종교현상학적 유형론에 의한 경전 선정과 분류에 따라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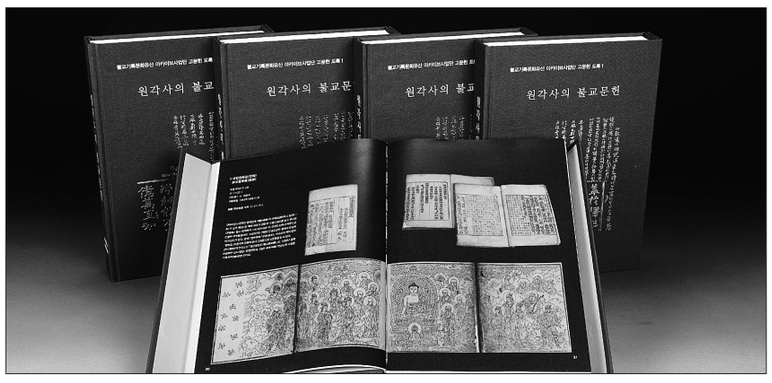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세계 7대 종교(불교, 그리스도교, 도교, 동학, 유교, 이슬람, 힌두교)를 이해하기 위해 7년간 노력한 끝에 2001년에 출간한 책이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요약본 발간이 요구됐고, 전통문화연구회는 2014년 이슬람으로 시작으로 문고판을 출간해왔다.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문고판 시리즈는 '불교'편으로 최종 완간됐다.

신성민 기자

원각사 소장 고문헌을 망라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각사 불교문헌〉 출간

2014~15년 1년여 조사
483종 612점 도록 수록
불교 서지학사 우수 자료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고양시 원각사 소장 문헌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집대성한 〈원각사의 불교문헌〉을 발간했다.

고양시 원각사에 소장된 고문헌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됐다. 이번 도록은 불교 고문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해 의미가 크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이하 동국대 ABC사업단)은 "고양시 원각사(주지 정각)에서 소장 중인 고문헌을 집대성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단 고문헌 도록 1, 원각사의 불교문헌〉을 출간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원각사 소장의 고문헌을 1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총괄책임 한상길 집성팀장)는 7명의 전문 연구원과 11명의 연구보조원, 5명의 촬영팀이 투입됐고, 총 54개 항목에 대한 정밀한 서지조사와 함께 5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에 출간한 도록에는 동국대 ABC사업단 집성팀이 조사한 불교문헌 335종 422책과 다라니 89종 123매, 불교 외 문헌 59종 67책을 수록했다. 도록 앞부분에는 조사개요로서 문헌을 시기별 · 판종별 · 형태별 · 주제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원각사 전체 문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문헌 수록 순서는 불교문헌은 △경장 △율장 △논장 △사휘 △중국찬술 △한국찬술 △일본찬술 △사지(寺誌) △불교연계문헌의 주제 순으로, 다라니는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시기 순으로, 불교 외 문헌은 경 · 사 · 자 · 집의 주제 순으로 배열했다.

이 가운데 〈묘법연화경(언해) 권 1, 4(보물 제1010-2호)〉을 비롯한 불교문헌 13종 18책과 고려시대 다라니 일괄(15종 37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2호), 〈자치통감(보물 제1281-3호)〉 등의 지정 문화재들은 수록 순서와 관계없이 앞부분에 소개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원각사 소장 불교문헌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책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간기가 충실히 남아있는 선본(善本)들이 많다"며 "이번에 출간한 도록은 수록된 문헌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불교 고문헌의 역사와 서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 효당의 삶을 살피다

만해학회, 27일 학술세미나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제1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효당 최범술의 삶과 불교(최화정, 동국대)' '일제하 효당 최범술의 일본유학과 교육활동(제점숙, 동서대)' '효당과 다솔사의 김범부(최재목, 영남대)'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김광식, 경북대)', '효당 최범술의 차살림살이와 반야로 차도(채정복, 효당차도문화원장)'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박몽구(순천향대), 김은영(동국대), 김주현(경북대), 전기철(숭의여대). 류건집(원광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울산 길상사' 개원

8월 5일 개원법회… 교육원으로 활용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역경원의 교육원 역할을 할 길상사(주지 범국) 개원법회를 8월 5일 봉행한다. 이날 개원법회는 달라이라마의 외교 특사이자 티베트 망명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삼동린포체를 초청해 열린다.

개원법회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티베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8월 5일 개원식에 이어 6일까지 삼동린포체의 보리도등론 법문이 이어지며, 수계법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한편,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이번 달라이라마 법문은 티베트대장경역경원에서 주관하고, 조계종 스님인 경우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거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